아 산 서 원

ASAN
ACADEMY

峨 山 書 院

VOYAGE

아 산 서 원　제 10 기

VOYAGE

아 산 서 원　제 10 기

"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확신한다."

아산(峨山) 정주영(鄭周永) 선생

아산서원 소개 06

사업 소개(비전, 교육목표) 08
입학식 10
원생 소개 12

인문교육과정 14

인문과목 수기 16
교양과목 수기 30
종업식 48

Asan Washington Fellowship Program 50

Washington DC 인턴십 수기 52
Friday Program 수기 74

Asan Beijing Fellowship Program 88

Beijing 인턴십 수기 90
Friday Program 수기 91

아산정책연구원 및 아산나눔재단 소개 94

아산서원 소개

사업 소개(비전, 교육목표)

입학식

원생 소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확고한 정체성과 건전한 국가관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큰 꿈을 펼쳐나갈 인재가 필요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아산나눔재단은 함께 '아산서원(Asan Academy)'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서원(書院)교육과 현대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합니다. 문사철(文史哲)에 기반을 둔 동서양의 고전을 통해 인간과 올바른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적 훈련을 통한 균형 잡힌 판단력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심, 그리고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력은 미래의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공동체를 아끼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원생 전원이 아산학사(기숙사) 생활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에 필요한 자질을 계발하도록 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는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일 뿐 아니라 미래의 리더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논리적인 설득력,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형성됩니다.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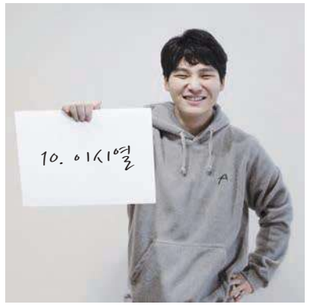
아산서원 원생들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유명 싱크탱크와 비영리 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래의 리더들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세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임과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도 갖추어야 합니다.

아산서원 제10기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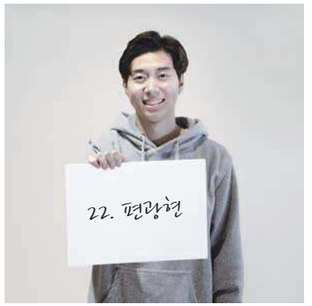
6. **이규정** 학력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 정치외교학과 장래희망 국제인권 기자 포부 소통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7. **이석현** 학력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장래희망 소통하는 화학 연구자 포부 겸손과 열림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8. **이수빈** 학력 서강대학교 사학과 / 경영학과 장래희망 한국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 기획자 포부 균형잡힌 시각 속에서 나의 업을 다져가겠습니다. 9. **이승주** 학력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장래희망 교육정책 연구원 포부 허영이 되지 않도록 정진하겠습니다. 10. **이시열** 학력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장래희망 인도적 지원 전문가 포부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9. **주혜빈**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래희망 정치학자 포부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겠습니다. 20. **채유미**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협력학과 장래희망 기자 포부 아산에서 제 인생의 정도를 찾아나가겠습니다. 21. **태희준**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장래희망 통일·외교정책 연구원 포부 주어서 비워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2. **편광현** 학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장래희망 신뢰받는 언론인 포부 아산서원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23. **홍승하** 학력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학부 국제학과 장래희망 국제법 전문가 포부 도전을 받아들여 성장하겠습니다.

1. **공희원**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장래희망 문화정책 전문가 포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2. **권유진** 학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장래희망 문화예술정책 연구가 포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3. **박공손**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 경영학부 장래희망 강연기획 전문가 포부 적극적으로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겠습니다. 4. **박효주** 학력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장래희망 사회심리학자 포부 아이의 마음으로 질문하고 배우겠습니다. 5. **윤지민** 학력 중국 Peking University 법학과 장래희망 국제통상 전문가 포부 지식과 덕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되겠습니다.



11. **이영섭** 학력 부산대학교 국제학부 장래희망 동아시아 에너지 전문가 포부 아산서원 원생들과 함께 반드시 꿈을 이루겠습니다. 12. **이유진**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장래희망 법조인 포부 깊은 뿌리와 튼튼한 줄기를 갖겠습니다. 13. **이재정**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 경제학과 / 스크랜튼학부 장래희망 사회 연구가 포부 더 많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4. **이혜진** 학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장래희망 초학제 연구교수 포부 국가의 棟梁之材로 성장하겠습니다. 15. **임태빈** 학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경영학과 장래희망 국제인권법률 전문가 포부 사람을 위한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16. **전지영** 학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물류전공 장래희망 4차 산업 분석가 포부 깊고 넓으며 따뜻한 시야를 가진 인재로 크겠습니다. 17. **정창희**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장래희망 다름과 함께하는 정치인 포부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18. **정태완**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장래희망 신뢰받는 법조인 포부 배우고 때로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문교육과정

인문과목 수기

교양과목 수기

종업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내가 알지 못했던 조선

이 시 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이남희 교수님의 면접 질문이 기억난다. 나는 "역사 공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지만, 답을 자신할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 열심히 역사를 공부했지만, 과연 교훈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수업은 역사가 주는 교훈에 다가가고, 그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관이 기록한 진실한 기록(實錄)을 통해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던 조선의 참모습을 만났다. 원생들의 정성스런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조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다. 500년 전 선조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며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기도 했다. 경희궁을 비롯해 조선의 흔적을 곁에 두고 있는 아산서원에서 『조선왕조실록』 수업을 통해 삶의 자취를 고민한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계사 격랑 속의 한국 현대사

너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라

정 창 희

유럽 여행 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한 친구의 집에 묵은 적이 있다. 내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역사를 묻자 친구는 놀랍게도

세계사 격랑 속의 한국 현대사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공산주의를 긍정했다. 공산주의를 평가하는 낯선 기준에 당황한 내게 그는 자신의 이야기만으로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너만의 역사관'을 만들어 가라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세계사 격랑 속의 한국 현대사 수업을 듣고 난 후, 나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다양한 관점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은 '나만의 역사관'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마음이 기우는 역사관도 있었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견해도 있었다.

나 역시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다. 마지막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는 "너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라"고 말씀하셨다. 다양한 역사관을 접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역사를 써 나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천자문(千字文)』과 『격몽요결(擊蒙要訣)』

옛것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다

윤 지 민

10주간의 『천자문』과 『격몽요결』수업은 우리 선현들의 바른 정신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천자문』에는 정체자(正體字)부터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글

『천자문(千字文)』과 『격몽요결(擊蒙要訣)』

**"우리는 윤리적 지식을 텍스트로만 배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생활로 배우지 않기에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학』과 '『격몽요결』' 등에서 말하고 있는
행동 강령과 지침은 오늘날에 비추어 보아도 큰 의미가 있다."**

'『천자문』과 『격몽요결』' 수업 김석근 교수님 말씀 中

자까지 생소한 것이 너무 많았다. 중국에서 17년을 생활한 나에게도 절대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지옥의 천자문'이라는 이름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독을 통해 정체자를 '마스터'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매주 『격몽요결』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기 위해 A4 한 장에 생각을 녹여내는 과제는 매우 어려운 창작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온전히 내 생각을 완성해 갈 수 있었다. 종이 한 장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알아가는 소중한 배움이었다. 혹자는 고리타분한 '옛것'이라 치부해 버리지만, 고전(古典)과의 만남은 나에게 새로운 '나'를 만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논어(論語)』

『논어(論語)』
생각의 힘

이 규 정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논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다. 공자는 학문과 사색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어』 수업에서는 학문과 사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텍스트를 함께 읽으며 공자의 사상을 배웠고, 배운 바를 사회 문제와 연관 지어 토론했다. 토론 주제를 정할 때부터 논의를 마무리할 때까지 생각의 고리는 이어졌다. 직접 던진 문제를 논의하고 나면 어쩐지 후련했다. 속 시원한 결론이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데만 급급했다면 그런 감정을 느꼈을 리 만무하다. 치열한 사투 끝에 가슴속 고민의 실타래에서 실낱같은 질문을 겨우겨우 끄집어낸 자만이 후련함을 보상처럼 얻는다. 그 실로 생각의 수를 함께 놓을 동지가 있다면 보상은 더 커진다. 『논어』 수업을 통해 그것이 생각의 결과물이며 배움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

“현대인에게 중용의 삶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사회를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논어』 수업 ‘중용을 지키는 삶’ 토론 내용 中

『맹자(孟子)』
줄을 끊은 마리오네트

박 효 주

어렸을 때 바비 인형에게 둘리 인형을 소개해 주며 놀던 때가 있었다. 나의 세계에 자유자재로 인형을 초대하던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어느 순간 멍하니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만 남아있었다.

그러다 뚝심이 있는 사람,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 감정, 정치 등에 관해 견고하게 쌓아놓은 논리와 이를 설명하는 비유에 연신 감탄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심의 싹이 피어올랐다. 『맹자』 수업

『맹자(孟子)』

은 내가 가진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원생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맹자의 사상에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한 비판에 멈추지 않고 본성, 즐거움 등을 주제로 글을 쓰며 내 시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나는 한동안 당기는 줄에 끌려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이었다. 비록 10주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맹자와의 대화는 나에게 자유롭고 순수하게 사고하는 힘을 주었다. 이제는 줄을 끊어내고 튼튼하게 나만의 생각을 하는 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끝없는 의심이 가져다주는 풍요

이 재 정

윤리학은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그 ‘우리’란 어떤 존재이며 그 ‘마땅함’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윤리학은 우리 삶 속의 선택에 관한 탐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끝없는 물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흔히 ‘윤리’라고 하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는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정원섭 교수님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윤리와 도덕에 감히 도전해 보라고 권유하셨다. 윤리와 도덕은 의심받지 않을 때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다하지만, 그 기능만으로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규범을 의심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하고 고민해야만 했다. 의심하고 고민하며 발견한 철학적 통찰은 우리에게 지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헤겔, 『정신현상학』
한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

권 유 진

헤겔, 『정신현상학』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대정신이 존재하는데, 그 누구도 이 시대정신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남긴 말이다. 헤겔이 말하는 시대정신이란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혹은 생각을 말한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역사적 격동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관조할 수 있는 ‘시대정신’은 절실한 의식이다.

제10기 원생들은 『정신현상학』 수업을 통해 이 시대의 절실함을 배울 수 있었다. 헤겔은 세상의 진리, 즉 정신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식의 우여곡절과 세상의 이치를 탐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동일시했다. 『정신현상학』 텍스트를 통해 인간, 사회에 대한 헤겔의 근원적 질문과 해석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통찰력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마주한 헤겔의 철학은 성장에 대한 한 인간의 따뜻한 시선이며 역사적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포근한 위로였다.

“의식은 경험을 통해 정신으로 발전하고, 정신현상학은 의식이 경험해 나가는 것을 회고해 나가는 학문이다.”

‘헤겔, 『정신현상학』’ 수업 강순전 교수님 말씀 中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정답을 모른다는 것

정 태 완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정해진 답만을 제시하게끔 한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들은 시험지에 인쇄된 객관식 문항들처럼 단순하지 않다. 수많은 주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정답이라기보다 선택에 가깝다. 『자유론』 수업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니다. 토론 주제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나는 오히려 내 주장의 한계를 마주했다. 그 어떤 주장도 반박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하지 않았고, 감정과 직관에 의존한 내 논거는 종종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의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다른 원생의 의견은 어디선가 막혀버린 내 생각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다. 나는 『자유론』 수업에서 주장에 대한 논거를 갖추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해두는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떠한 문제도 완벽한 정답은 없기에 대화하고 경청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CCTV,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파수꾼

이 유 진

수도권 지역 시민의 하루 평균 CCTV 노출 횟수가 무려 83회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마음이 꺼림칙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고속도로, 주차장 등 많은 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함재봉 교수님의 『감시와 처벌』 수업은 감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생각을 타파할 기회였다. 통상 감시를 사생활 침해와 연관을 지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수평적 감시는 만인의 만인에 관한 관심, 그리고 개성 존중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CCTV는 아무 말이 없다. CCTV가 소수의 다수 감시를 위한 수단이 될지, 다수의 소수 감시를 위한 보이지 않는 파수꾼이 될 것인지는 모두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수평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투명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디까지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또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에 대한 고민은 『감시와 처벌』 수업을 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구메 구니타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일본을 잘 알기 위하여

이 영 섭

“여러분은 일본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시나요?” 첫 수업 시간에 이새봄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첫 질문이었다. 나는 일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 일본에 대해 아는 것은 기

껏해야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이 전부였다. 교수님의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일본을 침략 국가로 연결하려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평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나는 일본이 어떻게 강국이 되었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 더 상대적인 시각으로 일본의 발전상을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근대화를 대하는 일본인의 치밀하고 섬세한 태도를 통해 일본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었다.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를 통해 일본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구메 구니타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옌푸, 『천연론(天演論)』

옌푸, 중국의 미래를 묻다

이 수 빈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기는 19 ~ 20세기이다. 서양 열강의 침탈에 아시아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단순히 부끄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천연론』은 내게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지식인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였음을 새롭게 알려주었다.

옌푸, 『천연론(天演論)』

『천연론』은 중국 근대사상가 옌푸가 서양 열강의 침탈에 맞서 중국의 미래를 고민한 흔적이다. 그는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관직 독점과 세습을 지적했다. 옌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의 다양한 사상을 알리고자 했다. 그 노력의 산물이 『천연론』을 비롯한 다수의 번역서이다. 시대가 당면한 과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며 직접 실천에 옮겼던 자세, 그것이 『천연론』이 현대의 지식인에게 주는 깨달음이다. 그러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겨 우리 또한 시대적 과제를 인지하고 끝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

1800년대 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주 혜 빈

우리는 지금껏 '역사'라는 담론이 주는 명료함에 매료되어 누군가가 해석한 역사를 소비해 왔다. 국사 교과서에 짤막하게 기록된 유길준과 『서유견문』은 '근대화'라는 표면적이고 두루뭉술한 정보 외에는 어느 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서유견문』 수업은 19세기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었다. 수업 시간마다 유불란 교수님과 함께한 1800년대 언문(言文)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격변기 조선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고 있던 것 이상의 숨은 진실은 때로는 불쾌한 권모술수 등을 들춰냈기에 격동기의 한반도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려면 개화기 조선으로 가야 했다. 조선을 바라보는 중국, 일본, 서양의 시각을 1차 자료로 접하니 수렁으로 향하는 마차의 마지막 고삐를 당겨보려던 개화기 지식인들의 다급함이 고스란히 몰려왔다. 해석한 역사, 결과 중심으로 끼워 맞춘 역사의 벽을 깨고 격변의 조선을

"18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조선의 공간성을 잘 이해하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 수업 유불란 교수님 말씀 中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

온몸으로 체험하며 해석된 역사로는 달랠 수 없던 갈증이 해소되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론』: 우리에게 바치는 헌정사

전 지 영

『군주론』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마키아벨리를 평생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군주를 만들려 했던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원전 자체를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업 덕분에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 『군주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유동적인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외침은 지금에 와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 외침을 듣기 위한 충실한 원전 읽기의 중요성을 알게 된 수업이었다.

알렉시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역사를 보며 민주주의를 배우다

이 석 현

『미국의 민주주의』 수업에서는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의 탄생을 조명하며 당시 미국이 민주주의를 채택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얕은 지식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닌 치열한 논쟁의 결과로 얻어낸 산물이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논쟁은 미국의 연방제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군주론』의 가치를 편견 없이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수업은 우리만의 논리로 토론한 후, 교수님이 던지시는 『군주론』의 이해를 위한 짤막한 힌트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강의 방식은 각자의 관점에서 책을 이해하게 했다. 나도 그 힌트를 곰곰이 따라가 보니 두 개의 다른 시대적 가치관 틈에 서 있는 마키아벨리를 만날 수 있었다. 두 개의 시대적 가치관 사이에서 고민한 그의 논리를 엿보며 그토록 대담한 생각을 담은 책을 군주에게 바친 용기에 매혹되었다.

알렉시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크게 이바지할 것인지, 독재정치로 회귀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갑론을박이었다. 첨예한 두 주장의 대립을 읽어가며 국가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동기 원생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체제이다. 그러나 정작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미국의 민주주의』 수업은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바와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알렉시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경제학 탐구

36.5℃의 경제학

편 광 현

경제는 우리 삶과 밀접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대할 때 차가운 머리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 아산서원에 입학하기 전 읽은 『이준구 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이준구 교수님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경제학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업을 통해 만난 교수님은 경제학을 통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경제학은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었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소득 분배론을 가지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가치를 토론하는 것이 경제학이었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학에서 감성적인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문학은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학문이다. 경제학 탐구는 36.5℃의 온도만큼이나 인간미가 느껴지는 인문학 수업이었다.

경제학 탐구

국제무역체제

누군가는 프로그래밍에 뛰어나다. 한 나라가 비교 우위를 찾아 그것을 특화하듯 우리도 각자 자신만의 비교 우위를 찾아 발전시킨다면 모두 윈윈(win-win)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왜 무역을 하는가?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차이에서 오는 무역 인센티브를 얻기 위함이다. 무역 이론은 무역을 하는 이유, 무엇을 무역하는가, 무역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국제무역체제' 수업 박태호 교수님 말씀 中

국제무역체제

비교 우위를 통한 윈윈 (win-win)

임 태 빈

뉴스에서 접하는 GATT, TPP, RCEP, FTAAP와 같은 무역 용어는 낯설기만 하다. 삶의 경험을 통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무역은 어렵게 느껴졌다. 국제무역체제 수업을 통해 기초적인 무역 이론 및 무역체제의 현황과 전개 방향을 익히며 무역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다. 각 국가는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며, 동시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 간단해 보이는 이론이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고 느껴졌다.

각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누구는 외국어에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글쓰기를 잘하며, 다른

수사학

Finding My Own Voice

채 유 미

너무 순수했던 걸까 아니면 무지했던 걸까?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어 왔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을 주입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진우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난 후에야 나는 평등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공허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평등, 사랑, 자유와 같은 것들도 절대적이지 않았다. 이 세상에 정언명령 같은 건 없었다.

우리는 10번에 걸쳐 좋은 사랑과 나쁜 사랑, 전쟁,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등을 토론하며 본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업에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내면 깊숙한 곳

수사학

연극의 본질 수업은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연극배우가 되어 무대를 꾸려볼 기회는 없었지만, 수업을 통해 한때 배우로서 무대에 섰던 때보다 오히려 연극과 공연예술에 관한 인문학적 해석을 배우며 다양한 시각을 가져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그 자체로 보람된 것이었으나, 연극 고유의 가치는 덧없음에 있다는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있었기에 더욱 알찬 수업이었다.

연극의 본질: 사회·욕망·기억

을 파헤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가장 세속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맞서 토론하다 보면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신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알아가는,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연극의 본질: 사회·욕망·기억

연극의 가치를 찾아가다

이 승 주

연극에는 영화에서 찾을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을까? 오랫동안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물음이었다. 영화는 한 번 필름에 기록되면 언제 어디서나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작품이라도 늘 다른 무대를 선보일 수밖에 없는 연극 예술의 덧없음이란 나에게 허망한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영화로 읽는 동아시아 문화

우리의 검(劍)이 향하는 곳

공 희 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아산극장의 문이 열린다. 기수마다 다른 주제의 영화 5편이 상영되는데, 제10기 원생들은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통해 그들의 서슬 퍼런 칼날에 담긴 삶,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보았다. 사무라이의 칼끝은 때로는 적을 향하기도 했고, 가족들을 위해 기

영화로 읽는 동아시아 문화

꺼이 무뎌지기도 했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배를 관통하기도 했다.

수업 시간마다 원생들은 무대에 올라 지난 영화에 대한 다양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사무라이의 모습을 완성해 나갔다. 또한, 사무라이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위해 검(劍)을 뽑아 들었던 것처럼 원생들은 각자 자신의 칼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다.

5편의 영화는 모두 끝이 났다. 종강 파티 때 나누었던 삶의 이야기처럼 서로의 생각을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제10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건축의 공간사회학

건축물에 반영된 메시지를 읽다

박 공 손

2015년 여름, 제16회 세계지식포럼 운영 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올라가는 길에는 오직 차도만 있을 뿐 인도는 없었다. 차도를 가로질러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고 나서야 호텔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면 오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을 뿐 건축물에 반영된 암묵적이고 폭력적인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첫 수업에서부터 건물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건물은

건축의 공간사회학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창(窓)이었다. 거리 위의 건물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검찰청 등 그동안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건물들에 반영된 권력 구조 및 수직적 상하관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건물과 공간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 인문학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질문 능력 배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의 공간사회학 수업은 가장 인문학다운 수업이었다.

유어예(游於藝): 예술에 노닐다

유어예(游於藝): 예술에 노닐다

국악의 흥과 멋에 취하다

임 태 빈

국악은 그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유어예 수업은 그러한 편견을 단번에 깨주었다. 직접 판소리를 불러 보고 가야금을 연주해 보는 등 생생한 경험을 통해 국악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다. 소금(小笒)의 기본 음계부터 배우고 쉬운 곡부터 다소 어려운 곡까지 차례로 익혀나갈 때는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광광(狂狂)술래'라고 불릴 만큼 흥겨운 강강술래

"판소리에서 고수의 역할은 추임새를 넣고 장단을 맞추는 것이고, 관객도 '얼씨구, 으이' 등의 추임새를 넣어 판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다. 단,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도해야 한다."

'유어예: 예술에 노닐다' 수업 이윤희 교수님 말씀 中

시간에는 웃고 뛰놀고 예술에 노닐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유어예 수업은 그동안 '우리 것'을 소홀히 한 채 '남의 것'을 좇고 따라가기 급급했던 태도를 반성하게 해주었다. 또한, 전통음악과 예술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시대상을 살펴보고, 전통음악을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었다. 국악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다.

맹윤호 졸업원생 특강

2016. 08. 11

우리가 만들어 가는 전통

이 승 주

김석근 부원장님께서는 아산서원의 전통은 원생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서원 생활 내내 나를 지탱했던 말이다. 생면부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실천한 맹윤호 선배님의 특강은 냉철한 시각과 타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원생으로서 어떤 전통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은 계기였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희생이라는 선배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원생들이 서원에서 단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대체 불가능한 인격으로서의 나를 세우고자 함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아산서원은 어느새 열 번째 원생들을 맞이하였다. 그러한 믿음을 실현한 선배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 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원생으로서의 긍지를 나 또한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경숙 이사장님 특강

2016. 08. 18

혼자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정 태 완

이경숙 이사장님의 특강에서 섬기는 리더십의 3대 요소인 '능력(Competence), 인격(Character), 그리고 헌신(Commitment)'을 듣고, 나는 전율을 느끼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온 능력이나 인격은 오로지 나 자신과 관계된 것들이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는 생각했지만,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부끄럽게도 헌신이라는 단어와 나는 너무나도 멀었다.

특강이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헌신하는 마음은 일상에서 잊기 쉬운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간직하고 있는 진심이 내 언행을 통해 타인에게 전해진다는 것도 느꼈다. '설령 내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의 관성이 내 발목을 잡더라도 성품은 계발하기 나름이다'라는 이사장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오늘의 깨우침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나를 바꿔 나갈 것이다. 실천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함재봉 원장님 특강

2016. 08. 19

역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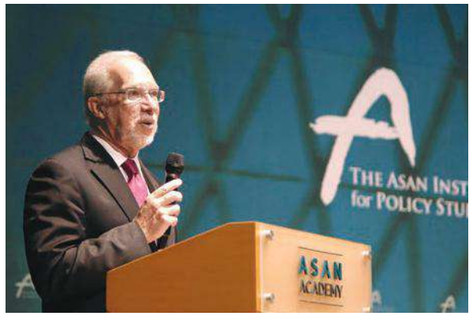
박 공 손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역사적으로 외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 조선시대까지는 중국,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해방 후에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적인 것'은 점점 사라져 왔다. 결혼식, 장례식, 입학식, 졸업식 등 많은 식(Ritual)에도 우리의 것이 없다. 마치 한국인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함재봉 원장님의 특강에서 나는 한국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한국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원장님께서는 '한국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한국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다.

에번스 리비어(Evans Revere) 국장님 특강

2016. 09. 12



Make them to Choose!

채 유 미

지금까지 나는 북핵 문제를 함수처럼 생각했었다. 식을 만들고 정해진 값을 넣으면 기대한 답이 나오는 그런 함수식 말이다. 에번스 리비어 국장님의 강연은 이러한 나의 고정관념을 깨주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우리는 항상 북한에 원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답을 정해주는 등 결정의 주체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매번 우리가 원하는 답이 함수의 결괏값마냥 나왔던 것은 아니다. 북한이 스스로 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듯 핵무장과 생존이라는 보기 사이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생존을 택하게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산(峨山) 선생이 소 떼와 함께 방북하며 시작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개성공단에서 자연스러운 남북교류로 통일의 메시지가 오가기를 바랐던 내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 북한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오늘도 미로 같은 남북관계에서 통일 문제를 고민해 본다.

최보결 박사님 특강

2016. 09. 30

솔직한 '나'와의 만남

이 재 정

"지금 발바닥과 인사하고 있는 이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움직이고 싶은 대로 표현하라는 최보결 박사님의 말씀에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몸이 이끄는 나만의 이야기를 솔직한 몸짓으로 흘려보냈다. 그것은 춤이 되었다. 제10기 원생들이 추었던 춤은 위대한 무용수가 아닌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춤이었고, 나의 순간에 충실한 춤이었고, 그것은 곧 우리의 인간다움을 위한 춤이었다. 춤을 아름답게 추는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은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이해는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특강을 통해 그동안 돌보지 못한 나 자신을 의식하고, 달래고, 치유할 수 있었다. 또한, 솔직한 모습을 부끄럼 없이 서로에게 내보임으로써 원생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손숙 선생님 특강

2016. 10. 04

연극은 나의 인생

전 지 영

연극 〈사랑별곡〉을 관람한 후의 감동과 잔잔한 여운은 배우 손숙 선생님의 특강을 기다리게 했다. 선생님은 전부터 인연이 두터운 아산서원을 찾아주셨고, 제10기 원생들은 선생님의 배우로서의 인생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서커스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대던 산골 마을의 소녀는 어느덧 55년 차 배우가 되었다. 그러기까지 수많은 막(幕)이 있었고, 산전수전을 담은 이야기들이 모여 선생님의 인생이 되었다. '돌처럼 단단하고 둥글둥글해진 삶' 앞에서 선생님은 배우가 자신의 운명임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연극이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께서 연극에 대해 말씀하실 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을 찾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제10기 원생들도 선생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자신만의 열정을 계속 찾아 나가길 바란다.

고영하 회장님 특강

2016. 11. 23

도전정신, 한국의 미래에 답하다

이 수 빈

최근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도전정신의 부재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엔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 대학 졸업생들이 스타트업 설립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 대학 졸업생 25만 명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님은 직면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도전정신의 중요성'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 도전을 두려워하는 동안 세계의 젊은이들은 공유경제와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왔다. 우리나라가 장기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방이 아닌 '혁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중에 자본금이 없어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이 가능해진 지금, 더는 도전을 두려워하기 보다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실용영어

고운 말 바른 말, 고품격 영어를 배우다

태 희 준

'영어'하면 떠오르는 것은 취업 준비를 하며 누구나 한번쯤 눈이 닳도록 공부하는 'TOEIC VOCA'가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도 않는 'abysmal'과 같은 시험용 단어를 의미도 모른 채 외우곤 했었다. 단어의 용도도 모른 채 무작위로 사용했고, 그 이상으로 영어를 공부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제10기 원생들에게 실용영어와 영어토론 수업은 '고운 영어와 바른 영어'에 눈을 뜨는 시간이었다. Linn Roby-Muller 교수님과 Danton Ford 교수님께서는 '교양과 실력을 갖춘' 영어를 지도해 주셨다. 우리는 평범한 생활영어나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단어 공부와는 수준이 다른 고급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현을 꾸준히 연습해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고품격 실력자로 거듭나고 싶다.

실용중국어(초급)

"老师, 我有问题!"

이 혜 진

실용중국어 초급반 6명의 원생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我有问题!"를 외쳤다.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정염영 교수님의 덕분이다. 교수님께서는 원생들의 질문에 언제나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해 답을 해주신다. 쉴 틈 없는 질문과 답변을 거친 결과물은 교수님의 판서로 가득한 칠판이다.

수업 내용 가운데 원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바로 '中國通信'이다. 중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데, 교수님의 실감 나는 이야기를 듣고 원생들은 자신만의 중국을 그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뿐이 아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 꽈배기, 해바라기 씨 등도 직접 가져오셔서 원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셨다. 단순히 중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를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실용중국어를 수강한 원생들은 중국어 학습을 통해 중국 문화와 가까워지면서 중국어 교수님과의 소중한 인연도 만들어 나갔다.

越来越好!

홍 승 하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모호하고 포기하기 쉬운 단계는 초급 수준을 지난 중급 단계라고 생각한다. 아산서원에 들어오기 전 나는 기본적인 표현과 어휘에서 벗어나 더욱 심도 있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혼자서 하는 공부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학습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나를 비롯한 다른 원생들에게 진희 교수님의 실용중국어 수업은 매주 적당한 동기부여와 도전정신을 제공해 주는 시간이었다.

수업 시간에는 교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습득한 단어와 표현들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웠다. 특히 자신이 가본 경험이 있는 혹은 가보고 싶은 중국의 도시에 대해 발표한 경험은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명의 원생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수업이었기에 교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 수업 내용을 다 같이 익히며 함께 실력을 길러 나가는 시간이었다.

실용중국어(중급)

실용중국어(고급)

오감으로 체험하는 중국

주 혜 빈

실용중국어 고급반은 선생님과 세 명의 원생이 머리를 맞대고 수업 계획을 짜는 일이 시작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수업이 있는 아침이면 라운지에 모여 중국 뉴스의 볼륨을 높였다. 유용한 시사 용어를 배우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귀와 눈으로 경험했다. 한시(漢詩)를 감상하며 가슴을 적셔 보기도 하고, 알리바바그룹 마윈(马云) 대표의 연설문을 분석하

며 중국의 위력을 피부로 느끼기도 했다. '승녀(剩女)' 등 사회이슈부터 미중관계, 양안관계 등 국제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글을 쓰며 중국의 빛과 그림자를 분석했다.

수업은 책상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중국 영화를 감상하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면 중국인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다. 또한 직접 거리로 나가 혀끝으로 느낀 중국의 식(食)문화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실용중국어 수업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종합선물세트'였다.

2016
1014

예절교육(1): 전통예절교육

형식에 진심을 담다

주 혜 빈

우리가 '고루하고 답답한 것'으로 인식하는 '전통(傳統)', 그리고 '복잡한 절차'로 인식하는 '예절(禮節)'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본질이 형식에 갇히는 순간, 그 둘은 분리되기 시작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전통과 예절이라는 형식만 남게 되면 대개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자 그곳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예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예의와 으레 쌍을 이루는 '범절(凡節)'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여 나타내는 방법'인 예절, 그것은 나의 마음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실어 보내는 그릇이었다. 마음을 표현할 때에도 받는 이를 섬세하게 생각한 선현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형식만 남아 가식과도 다를 것 없던 예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전통예절교육을 받고 나서 예절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본다. "나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 이와 같으니, 부디 잘 전달되기를 바라오"

2016
1111

예절교육(2):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든다

임 태 빈

우리나라에서는 식탁 앞에서 코 푸는 것을 결례로 여긴다. 반면 미국의 레스토랑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는 상대적이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異) 문화 이해는 필수적이다. 아이컨택, 악수법, 명함 매너, 테이블 매너 및 와인 실습까지 다양한 글로벌 에티켓을 배웠다. 중요하지만 자칫 지나

칠 수 있는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임을 깨달았다.

유명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은 '변화에 적응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원생들은 인턴십 출국을 약 한 달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통해 익힌 실용적 디테일을 '내 것'으로 갖춘다면 미국과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다. 사소함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큰 차이를 만드리라 믿는다.

2016
1017

문화기행

2016
1019

상쾌한 공기에 흠뻑 빠져 조선시대의 선비가 느꼈던 여유와 풍류를 즐기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기행의 묘미는 농암종택에서의 시 낭송에 있었다. 둥근 보름달이 뜬 밤, 원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준비한 시를 낭송하던 그 분위기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평소에는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시를 외우고 낭송하는 일은 꽤 어렵고 어색했다. 그렇지만 원생들이 낭송하는 시에 공감하며 피식 웃기도 하고 진지한 고민에 빠져볼 수도 있었다. 문화와 운치가 어우러진 문화기행 덕분에 서원 생활의 활력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다.

2016
0910

문화기행에서 되찾은 활력

이 석 현

모든 일에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법이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더 배우고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한 휴식이 아닐 수 없다. 제10기 원생들은 모처럼의 여유를 갖기 위해 인문교육을 반쯤 마치고, 안동과 울산으로 문화기행을 떠났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어느새 화창한 가을 날씨, 물 흐르는 소리,

봉사활동(1): 고추 수확 봉사

나눔을 통한 배움

홍 승 하

쌓여가는 과제와 반복되는 학사 생활에 지쳐갈 때쯤 제10기 원생들은 친환경 먹거리 재배와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교남어유지동산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세 번에 걸친 방문에도 그곳은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원생들을 맞아주었다. 가을 햇살을 맞으며 새빨간 고추를 수확하고, 김장철에는 힘을 모아 쪽파와 무를 다듬었다. 두툼한 겉옷을 껴입을 무렵에는 텅 빈 고추밭을 정리하며 월동 준비까지 우리 손으로 마무리했다. 교남어유지동산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또 다른 배움이었다.

아산학사와 강의실에서 원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면, 봉사활동은 더 넓은 세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분들을 보며 쉽게 게으름을 피우던 내 모습을 반성했다. 세 차례에 걸친 봉사활동을 통해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배움을 얻었다.

2016
1216

봉사활동(2): 적십자 사랑의 제빵 봉사

힘든 만큼 의미 있었던 하루

편 광 현

12월의 추운 금요일, 제10기 원생들은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로 향했다. 생전 처음 제빵 모자를 쓴 원생들은 밀가루 계량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내야 했다. 우리의 목표는 50가구분의 단팥빵, 머핀, 영양 찰떡을 만드는 일이었다. 구체적 목표가 있었고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선생님께서는 쉴 틈 없이 우리를 채근하셨다. 그럼에도 봉사시간은 계획보다 한 시간이나 길어졌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빈속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어설픈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우리는 857개의 빵을 만들었고 빵은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었다. 적십자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은 힘들었기에 진정으로 의미 있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든 만큼 봉사의 가치를 깨달은 시간이었다.

봉사활동(3): 사랑의 밥차 봉사

2016
1223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는 노숙인들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주기도 하지만, 노숙인들은 술값을 마련하려 그 옷마저 팔아 버린다고 한다. 추운 계절에는 술기운에 의지해 잠을 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이나 물건을 매개로 하는 봉사나 기부는 간편하지만, 쉽게 팔아 치울 만큼 가벼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인사 한마디, 정성어린 손길을 나눈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조금 더 어렵더라도, 직접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서로의 온기를 맞대는 일이 이 겨울, 급식소를 찾은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나누는 밥의 의미

이 승 주

개인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한 적은 있었지만, 나에게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은 여느 급식 지원 활동과는 다른 의미였다. 어려운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였던 까닭이다. 서울역에 도착한 원생들은 추운 거리 생활에 대해 전해 들었고,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2016
0830

문화체험(1): 영화 〈인천상륙작전〉 관람

설렜던 첫 단체 영화 관람

이 영 섭

제10기 원생들이 처음으로 영화를 단체 관람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현재 네티즌과 평론가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 논란이 많은 영화다. 부원장님께서는 원생들이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화를 직접 관람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선택하게 됐다고 하셨다.

스케줄이 빡빡해서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원생들과 함께 나가는 나들이라는 생각에 설렜다. 원생들과 영화관 가는 길에 이야기하는 것도 단체 나들이의 묘미였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부원장님께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라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네이버 평론가 보다 뛰어난 23명의 아산 평론가들이 쓴 글을 읽었고, 원생마다 다른 생각을 읽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공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좋다.

2016
0909

문화체험(2): 영화 〈밀정〉 관람

그림자의 시대 - 밀정

태 희 준

"동지는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영화 〈밀정〉의 한 대사이다. 〈밀정〉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웠던 독립군 의열단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친일과 항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 시대의 양 극단 사이에서 아찔한 줄타기를 하는 밀정들을 보며 우리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

돌아보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처럼 이념과 체제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했던 나라 잃은 한민족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현재의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친일과 항일을 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역사적 편 가르기에 가려진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되짚어보며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 나는 과연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6
0922

문화체험(3): 연극 〈사랑별곡〉 관람

메마른 삶에 내린 빗방울

이 규 정

몸 누일 그늘 하나 없는 사막, 연극 〈사랑별곡〉 주인공 순자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막'이었다. 그래서 힘이 들 땐 삶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듯 술을 마셨다. 좋은 손님이 올 땐 인생의 궂은 땅을 적셔주는 것처럼 비가 내렸다. 척박한 삶을 채워준 술과 비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매개였다. 술을 마실 땐 딸과 장터 동지들이 있었다. 비가 내릴 땐 아끼던 며느리와 첫사랑이 순자를 찾아왔다. 사람이 곁에 있어 순자의 메마른 인생은 때때로 촉촉한 물기를 머금을 수 있었다.

아산서원 생활을 이어온 지 어언 두 달째다. 수업과 과제에 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배울 수 있어 행복하지만, 하루하루를 채우는 과정이 마치 한계에 도전하는 작업 같기도 하다. 힘이 들 때 메마른 나를 채워준 건 역시 사람들이었다.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지난 두 달이 촉촉할 수 있었다. 순자의 삶을 지켜보며 내 삶에 내린 빗방울에 더 감사하였다.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빗방울이 되어주고 싶다.

2016
1014

문화체험(4): 북촌문화체험

혼(魂)을 담은 붓 자국

권 유 진

한국화(韓國畵)를 접할 기회는 아마도 학창 시절 미술 시간이 유일했을 것이다. 그림을 보고 즐기기보다 무작정 제목과 화가를 외우기만 했던 우리에게 한국화는 낯설기만 하다. 햇볕 좋은 날, 우리는 민화에 속하는 잉어와 사군자 중 하나인 국화를 그리며 낯선 우리 전통에 한 걸음 다가서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잉어도와 국화도를 그리며 한국화에 담긴 조상의 정신적 유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로부터 잉어는 출세를 상징한다. 작은 도랑에서 큰 강가로 힘차게 헤엄쳐 나가는 잉어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세상에 나가 큰 뜻을 펼치는 사람의 기세와 닮았다. 그리고 국화는 서리를 이겨내는 강인함과 향의 은은함을 동시에 지닌다. 특히 국화는 덕과 학식을 고루 갖춘 선비의 고귀한 정신과 닮았다. 따뜻한 가을날의 북촌문화체험은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전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잉어와 국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덕과 학식을 갖추고 큰 뜻을 펼치기를 다짐해 본다.

사물놀이

최고의 공동체 수업, 사물놀이

이 혜 진

사물놀이의 시작은 정고(旌鼓)다. 웅장한 북소리에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면 다음으로 경쾌한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고 신명 나게 놀이를 시작한다. 열두 번에 걸쳐 금요일마다 진행된 사물놀이는 일주일 동안 묵혀온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신나는 시간이었다. 때로는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지만 서로를 독려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시간을 즐겼다. 완벽한 소리를 내는 것보다 함께 연주하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10기 원생들은 이전 기수가 시도하지 않았던 짝쇠를 공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다. 짝쇠는 일반적인 사물놀이와는 달리 꽹과리 두 개를 중심으로 악(樂)에 흥을 더한다. 장구와 북 반주 위에 꽹과리가 서로 번갈아 장단을 얹어 낸다. 그 어떤 곡보다도 서로의 호흡이 관건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사물놀이 수업, 이보다 더 좋은 공동체 수업이 있을까?

봉산탈춤

2016
0812

신명 나는 우리의 춤, 봉산탈춤을 배우다

윤 지 민

봉산탈춤은 춤을 중심으로 몸짓과 재담, 노래 등을 곁들인 활발하고 경쾌한 전통춤이다. 흩뿌리는 장삼(長衫) 소매와 한삼(汗衫)의 움직임이 펼치는 화려한 매력은 탈춤 수업을 선택한 제10기 원생들을 매번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다.

탈춤 수업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열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처음 한삼을 받아들던 날, 후들거리는 두 다리와 제멋대로 움직이는 손을 보며 '과연 내가 공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기도 했었다. 부단한 연습 끝에 어느 순간부터 장구 장단에 몸을 맡기고 탈춤의 흥과 멋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원생들은 각각 팀을 나눠 우아하고 절도 있는 사상좌춤, 술에 흠뻑 취한 목중들의 팔목중춤, 봉산탈춤의 백미인 사자춤 연습에 매진한 끝에 제10기 종업식 축하 공연을 잘 끝마칠 수 있었다. 봉산탈춤을 통하여 전통예술을 맛보고 문화 계승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으며, 신명 나는 우리의 춤을 직접 배우고 공연할 수 있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팀스포츠(1): 체육대회

알림픽에서 '같이'의 가치를 느끼다

이 시 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던 8월 초, 우리는 우리만의 올림픽을 열었다. 그 이름은 바로 '알림픽(아산서원+올림픽)!' 버블 사커와 단체 줄넘기 등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하면서 원생들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아직 서먹했던 원생들은 언제 그랬었냐는 듯 환한 대화꽃을 피웠다. 두 팀 간 경쟁은 매우 치열했지만, 우리는

승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 팀이 못하면 박수로 격려해 주고, 동료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 된 제10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옛말처럼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이번 '알림픽'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서원 놀이를 시작한 지 갓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10개월의 여정이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22명의 동기와 함께라면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2016
1015

팀스포츠(2): 조정

조정, 그리고 함께해서 행복한 하루

이 유 진

청명한 가을날,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향하는 제10기 원생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조정이라는 운동을 처음 접해보는 까닭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탁 트인 미사리 호수와 이를 둘러싼 아름다운 산자락,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코치님들을 보는 순간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제10기 원생들은 로잉 머신(Rowing Machine)으로 기본자세를 익힌 뒤 팀을 구성해 실제 경기를 펼쳤다. 로잉 머신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했지만, 물 위에서는 팀원들이 화합해야만 시원하게 물길을 헤치는 느낌을 맛볼 수 있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서로 집중하고 배려해 호흡을 맞출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는 희열이 찾아왔다. 함께 정한 구호를 외치며 우리는 서서히 진정한 하나의 팀이 되었다. 휴일 늦잠을 반납하고 간 미사리였지만 흥겨운 노래가 절로 떠오를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정을 즐기고 하나가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2016
1027

팀스포츠(3): 볼링

스트레스, 굴려버려!

공 희 원

제10기 원생들은 볼링장에 들어선 이후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처럼 삼삼오오 모여 내내 웃음꽃을 피웠다. 10개의 핀을 모두 넘어뜨리는 순간에도, 공이 의도치 않은 곳에 빠지는 순간에도 마무리는 항상 따뜻한 하이파이브로 이어졌다.

아산서원에서의 여정은 절대 순탄치만은 않다. 밀도 있는 인문교육과정과 공동체 생활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때 팀스포츠는 원생들의 단단하게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웃으며 운동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번 팀스포츠는 지나온 여정의 묵은 체증은 내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위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볼링공과 함께 굴려 보낸 스트레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쌓은 단합심이 앞으로의 여정에 힘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치회

갈등의 미학

박 효 주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험악한 싸움을 겪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기도 전에 '미안해'라는 한 마디로 우리의 갈등은 종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의 개념 지도에는 갈등, 싸움, 대립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다. 되도록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 정답이라 여겼다. 가장된 평화로움에 취해 있었다.

제10기 원생들과 함께한 자치회는 항상 순조로움을 원했던 내가 갈등의 미학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생들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갈등은 피해갈 수 없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충돌은 언제나 진전된 결과로 이어졌다. 부딪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견을 조율하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에 도달했다. 무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받는 의견 속에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에 다가섰다.

2016
0912

작은 음악회

21세기 국악의 힘

정 창 희

유어예 수업 이후에도 국악은 내게 여전히 낯선 음악이었다. 그러나 '21세기 국악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된 〈작은 음악회〉가 그 문제를 해소해 주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음악회에는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첫째, '지루함'이 없었다. 아산서원에서 국악을 접하기 전, 나는 국악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 OST 및 대중음악을 접목한 국악은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다. 둘째, '어색함'이 없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악 공연이기에 관객으로서 지켜야 할 매너를 몰라 다들 어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신명 나는 연주와 흥 넘치는 공연은 외국인 교수님들도 함께 들썩이게 하였다. 셋째, '세대 차이'가 없었다. 이날 교수님들과 원생들은 판소리 〈흥보가〉와 이문세의 〈붉은 노을〉로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국악에 매혹되어 하나 된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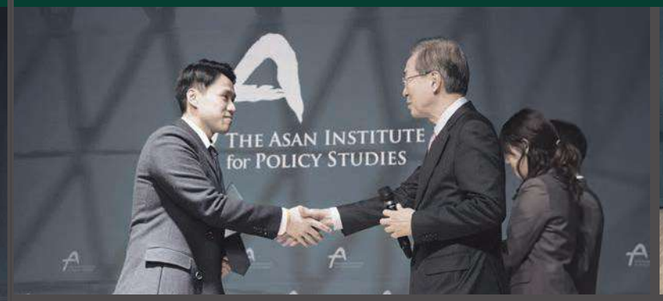
너는 듣고 있는가
원생들 감시의 노래

THE ASAN
for POLICY

AWARDS
ASAN
ACADEM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BEST
COUPLE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ASAN IN
for POLICY

Asan Washington Fellowship Program

Washington DC 인턴십 수기

Friday Program 수기

AJC Asia Pacific Institute

American Jewish Committee(AJC)는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유대인 인권 문제를 필두로 글로벌 고위급 외교를 폭넓게 수행한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AJC는 미국 내에 22개, 세계적으로 30여 개가 넘는 지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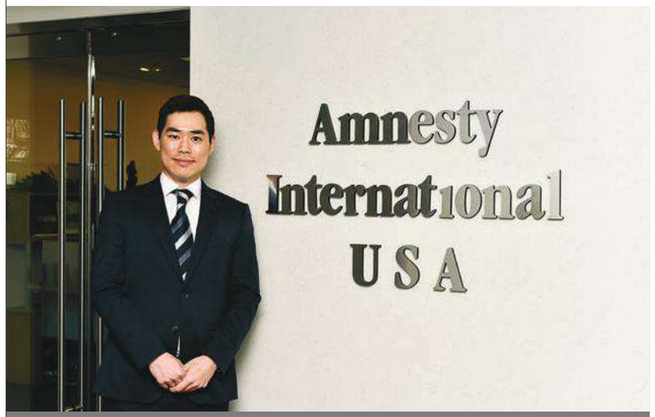
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유대인은 생소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존재 하나도 아시아와 유대인의 상호 이해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AJC의 일원 중 하나로 제10기 원생들과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한 것, 유대인들과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기획한 것 등 미국인도 유대인도 아닌 내가 사람들의 연결 고리로 일할 방법은 많았다. 모르는 것을 혼자 공부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기에 누군가의 연결 고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미국인도 유대인도 아닌 연결 고리

채 유 미

유대인이 누구인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민족, 종교, 국적도 아닌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유대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AJC에서 일하게 되었다.

내가 소속된 Asia Pacific Institute에서는 AJC와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아시아 국가가 AJC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인권 단체로 유엔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관이다.

한 일이 단순한 정의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 분야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이를 지키려는 노력은 내게 더 큰 책임감을 실어주었다.

함께한 동료들 덕분에 공존의 가치도 배웠다. 굳은 신념으로 한 데 모인 사람들은 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열정과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며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홀로 공부했던 시간,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시간 모두가 인간을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었다.

다시 사람을 배우다

이 승 주

Amnesty International에서 나는 인간의 존엄성은 거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는 혼자서는 일궈낼 수 없다는 점을 배웠다.

매일 각국의 인권 관련 최신 상황을 기록하고, 여러 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업무는 차라리 공부에 가까웠다. 인권을 수호하는 일이 지당하다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만 그 마땅

人TURN: 사람을 향하는 곳

박 공 손

Atlantic Council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턴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 기관의 주요 업무인 연구, 출판, 콘퍼런스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나는 Asia Security 부서의 독립 센터 설립을 위해 조직된 Asia-Pacific Strategy Task Force 관련 회의의 메모 작성 및 최종 보고서 출판 업무를 도왔다. 또한, 남중국해 갈등으로 인한 주변국의 해상 미사일 방어체제 확대 관련 연구와 주요 콘퍼런스의 진행을 보조했다.

Atlantic Council

Atlantic Council은 국제안보와 세계경제 번영 및 미국과 아틀란틱 연합의 리더십 발현을 위한 각종 국제이슈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인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폭넓은 경험과 지식,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인턴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역할을 존중하는 Atlantic Council. 사람을 중시하고 기관의 중심이 사람을 향하는 이곳에서 보낸 19주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

권 유 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스쳐 지나간다. 찰나의 순간과 한 줌 숨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수십 억의 인구가 사는 이 지구 상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쉬이 그 인연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한다. Atlas Corps와 함께한 다섯 달의 시간 동안 나는 인연의 힘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했다.

Atlas Corps는 인연의 힘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념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젊은 펠로우를 미국이라는 기회에 땅에 초대해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로써 언젠가는 비상할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훗날 이들이 만들어낸 인연들이 그들의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한다. Atlas Corps가 그리는 미래는 천천히, 하지만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 삶 속에 자리 잡은 Atlas Corps라는 인연이 내게 어떤 미래를 그려줄지 기대된다.

Atlas Corps

Atlas Corps는 2006년에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혁신과 협력, 21세기 과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이다. Atlas Corps는 사회공헌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은 인재들에게 약 12 ~ 18개월에 걸쳐 미국 내 선진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EIP는 1910년에 설립되어 국가 간의 협력 증진과 국제평화 촉진에 기여하는 연구와 출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사인 워싱턴 DC뿐 아니라 모스크바, 베이징, 베이루트, 브뤼셀, 뉴델리에 지사를 둔 글로벌 싱크탱크이다.

국제관계의 무대

이 석 현

CEIP에서 나는 Nuclear Policy Program과 Asia Program에 속해 한반도 핵 상황을 조사하였다. 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관계 및 우리나라 대응체계를 알아보았다. 평소 나는 핵을 그저 '악(惡)'으로만 여기며 국제관계에서 핵이 가지는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인턴십 기간 동안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콘퍼런스에 다니며 핵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핵은 나쁘다'라는 편견에 가로막혀 고민해 보지 않았던 논의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였다.

CEIP는 거대한 싱크탱크답게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콘퍼런스에 참여하며 국제관계의 무대로서 기능하는 워싱턴 DC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책에서만 보던 각종 사안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CIPE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CIPE)는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1983년에 설립된 이래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이라기보다 예술

정 태 완

CIPE는 현재 5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두 협력 단체와 함께 Global Alliance for Trade Facil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속한 부서의 이름이기도 한 이 프로젝트의 준비와 진행 과정을 옆에서 바라보며, 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마침내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토대를 다지는 노력이 필요한지를 배웠다.

업무의 성격상 대상 국가의 정부와 관세청, 파트너십을 맺은 여러 회사, 협력 단체들과 끊임없는 조율 과정이 필요한데, CIPE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과학이라기보다 예술(It's more an art than a science.)이라고 자주 표현한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일이 차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변수가 불시에 개입하므로 창의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멋진 표현을 이곳에서 얻어 간다.

CIPE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CIPE)는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1983년에 설립된 이래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Mission is Possible

정 창 희

한 조직이 지속하려면 뚜렷한 꿈(Mission)과 현실적인 계획(Vision)이 필수적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은 무척 어렵다. 하물며, 비영리 단체 CIPE가 조직을 유지하기란 더욱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우연히 참석한 사내 회의에서 내 예상이 빗나갔음을 깨달았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만한 각자의 노하우를 주고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갖은 위험까지 감수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함께 일하는 그들이 맞는지 어리둥절했다. 이들이 마치 영화 〈미션임파서블〉의 주인공처럼 느껴지고, 형식적으로만 느껴지던 'Strengthen Democracy'라는 미션도 현실적인 비전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의 씨앗을 그들만의 방법으로 전 세계에 뿌리는 현실주의자들. 민주주의를 이론으로 배운 나에게 현실적인 미션과 비전을 온몸으로 보여준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 자체로 배움이었다.

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1962년에 설립된 이래 외교 · 안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 국제기구와 민간 영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든 소식, 오피니언, 언론 및 정부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매일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때로는 이 조사를 기반으로 Victor Cha 박사님과 연구원들에게 브리핑하기도 하고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중도'는 모든 공부의 시작점이다. 기초이고 근본이다. 나는 CSIS에서 근본을 배웠고, 다양한 시각을 갖춘 '중도'가 되고자 노력했다. 어느 분야에서든 '중도'가 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공부할 것은 많다.

중도 CSIS와 한반도 '중도'

태 희 준

CSIS는 워싱턴 DC에서 중도를 대표하는 연구 기관으로 진보 성향의 The Brookings Institution, 보수 성향의 The Heritage Foundation과 함께 미국 싱크탱크 계의 3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중도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내가 맡은 임무는 '중도'가 되는 것이었다. 즉, '중앙 도서관'의 역할을 해내야 했다. 나는 하루에도 20 ~ 30건의 글을 수집해서 읽고, 한반도와 관련된 모

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1962년에 설립된 이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 국제기구와 민간 영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기관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며 같은 정보를 제공할 때도 방식에 따라 수용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배경의 인턴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China Power Project에서의 경험은 다시는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다.

세계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다

홍 승 하

중국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CSIS의 China Power Project는 바로 이 질문을 탐구한다. 우리 팀의 주요 업무는 중국과 관련된 정보를 새로운 형태로 풀어내며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중 내가 맡은 일은 소셜 미디어 관리와 각종 연구 보조였다.

한국에서만 공부하다 보니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CSIS라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에서 일하면서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CNI는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전 미 대통령이 1994년에 설립한 중립적 성향의 비영리 기관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한·중·일 공식 입장과 미디어 반응을 기관 내 전문가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같은 이슈를 여러 언론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국익을 해당 국가의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더불어 한국의 조기 대선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익'을 생각해 볼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다.

국익을 생각하다

공 희 원

CNI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 유일하게 방문했던 싱크탱크로 당선 이후 기관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크게 외교 안보 연구 및 정책 자문 부서와 세계적인 시사지 *The National Interest* 발행 부서로 나뉘는데, 두 부서 모두 다채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 CNI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강력하게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불안한 동북아 정세가 맞물리며 기관에서는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나의 주요 업무는

EAST-WEST CENTER
COLLABORATION • EXPERTISE • LEADERSHIP

EWC는 1960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학자들을 초청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미국과 해당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를 증명하기

이 재 정

EWC는 동서양 간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세운 기관이다. 이곳에서 내가 맡은 일은 동서양의 교류가 각국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사로 작성하는 일이었다. 미국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동양 문화를 소개하고, 그 영향이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이 미국 사회에 배어들지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근거로 글을 작성했다.

EWC에서 맡은 업무는 미국에서 '동양인 여성'인 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인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증명해야만 했다. 내가 작성한 글은 미국인이 이해하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나의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해준 EWC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었다.

the FOREIGN POLICY initiative

FPI는 비영리 싱크탱크로 미국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협력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Soaked by Dew Drops

이 규 정

FPI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에 차갑고, 사무적이다. 출퇴근 시 인사를 하지 않는 건 예사다. 누군가 회의에 불참해도 굳이 부르지 않는다. 할 일이 있겠거니 한다. 밥을 같이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밥 먹는 동안에도 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기관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글을 제출하면 열 일 제쳐 두고 피드백을 해준다. 자세한 피드백에 화면이 다 빨개질 정도다. 바보 같은 질문을 던져도 열과 성을 다해 설명해준다. 가끔 인턴 방에 이유 없이 찾아와 장난을 걸기도 한다.

온도 차가 심하면 결로가 생긴다. 결로는 공중을 떠다니던 분자가 한데 뭉쳐 만든 물방울이다. 온도 차가 아니었다면 엉기지 못했을지 모른다. FPI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며 소담한 이슬방울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이곳에서 한 명 한 명의 이슬방울에 촉촉이 젖어 들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을 공부하다

편 광 현

KEI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책 연구소이다. 한미관계에 관한 출판물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거의 매주 콘퍼런스를 열어 전문가들과 청중들의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

처음 스태프들을 만났을 때, 나는 자신을 한미관계에 관심이 많은 한국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평소 자신하던 것에 비해 나는 한미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주미 한국대사의 이름도 몰랐고, 한미 FTA 규모도,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동료 연구원이 알려줘서야 알게 됐다.

KEI KOREA ECONOMIC INSTITUTE
한 미 경 제 연 구 소

1982년에 설립된 KEI는 한국과 미국의 학문 및 정책 커뮤니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한국 유행어에 관한 가벼운 정보부터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무역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 결과, 기관 웹사이트에 나의 글들이 게재되었고 내가 조사하고 가공한 자료들이 연구 결과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스태프들과 함께 지내며 나 역시도 한미관계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젊음의 용기

전 지 영

New America는 대담한 기관이다. 워싱턴 DC 버블에 갇힌 낡은 싱크탱크 모델을 다각적으로 해체하고, 급속히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 되고자 끊임없이 고민한다. '새로운 미국'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배짱과 포부를 읽을 수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내가 속한 Cybersecurity Initiative는 비교적 최근에 안보 영역에 편입된 사이버 공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젝트 진행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했지만, 매일같이 참여한 팀 회의는 업무 못지않게 큰 배움의 기회였다. 팀이 뉴스를 소화하는 포인트, 투자자와의 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의 운영 방식과 팀이 의사결정을 위해 거치는 사고 과정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약 5개월 동안 가까이서 겪어보니, 젊은 조직이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용기가 나에게도 옮겨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NEW AMERICA

New America는 1999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21세기 미국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며 외교정책, 안보, 교육 및 IT 분야를 다루고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의 만남

이 영 섭

GMF는 미국과 유럽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서양 지역 현안 관련 간행물 출판 및 콘퍼런스 개최가 주요 업무이다. 나는 태평양 지역 현안을 다루는 Asia Program에 배정되어 아시아 관련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매주 해당 지역의 뉴스를 요약하는 일을 했다. 유럽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조금은 엉뚱해 보이기도 하는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니 뜻밖에 국제정세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G|M|F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STRENGTHENING TRANSATLANTIC COOPERATION

GMF는 정치, 경제, 외교, 에너지 등 대서양 국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다.

접할 기회가 적었던 유럽 정세를 들으며, 아시아의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정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국가와 유럽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GMF Asia Program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주제를 접하면서 국제정세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STIMSON

The Henry L. Stimson Center(Stimson Center)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장관이었던 Henry L. Stimson의 신념을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실용적인 국제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싱크탱크이다.

생각을 요리하는 곳

주 혜 빈

"주방에 있는 초콜릿 집어가세요!" 먹음직스러운 간식을 알리는 메일은 하루가 멀게 날아든다. 메일은 곧 짤막한 '해피아워(Happy Hour)'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방으로 모여든 직원들은 재미난 일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며 달콤한 간식의 간을 맞춘다. 흐뭇한 담소 뒤 연구실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느새 둘도 없는 냉철한 분석가로 돌변한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를 다루기 쉽게 손질하고, 자신의 판단과 입장을 잘 버무려내면 그럴싸한 향기가 워싱턴 DC 곳곳의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그렇게 이벤트가 펼쳐지고, 모여든 이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어내 이벤트의 풍미를 더한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로 요리된 근사한 분석을 식탁 위에 내어놓는 곳. 직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요리를 맛볼 기회를 주고, 겸허하게 비평을 수용하는 곳. Stimson Center는 바로 그런 곳이다.

The Heritage Foundation
LEADERSHIP FOR AMERICA

1973년에 설립된 The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 내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및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기관이다.

워싱턴 DC에서 보수를 논하다

이 유 진

The Heritage Foundation의 하루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역동성이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기관에는 전례 없이 많은 회의가 줄을 이었다. 회의에 배석해 현장에서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는 생생한 광경은 물론 하나의 정책안이 나오기까지 여러 전문가가 협업하는 모습도 보았다. 시의적이고 전문적인 일 처리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The Heritage Foundation은 인턴들에게 매주 보수주의 가치 교육과 부서별 주요 정책 브리핑을 제공한다. 미국의 보수주의란 무엇이고 The Heritage Foundation이 특정 정책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워싱턴 DC에서 오가는 논의의 역학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매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돌이켜보면 스스로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소중한 경험을 가능케 해준 지난 5개월에 감사한다.

나를 위해 당당해지다

이 혜 진

Hudson Institute에서 내가 배운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이었다. 처음 군사 전문 Richard Weitz 선임연구위원님과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의학도인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인턴십 시작에 앞서, 선임연구위원님께 내가 해온 공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가능하다면 Health Care 부서의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내 전공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배정해 주셨다. 덕분에 Global Philanthropy, Health Insurance, Obesity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다. 여러 미팅 끝에 인도 출신 Aparna Pande 박사님을 도와 한국과 인도의 의료보험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조율해 나간 결과이다. 이곳에서의 배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H

Hudson Institute는 국제안보와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자유 증진을 지향하는 독립 싱크탱크이다. 특히 국방, 국제관계,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각종 출판, 콘퍼런스, 정책 브리핑 등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정치, 경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미래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Advanc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U.S.-Asia Relations

미국-아시아 관계 증진에 있어 두드러진 활약을 했던 Mike Mansfield 전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 Maureen의 정신을 기려 설립된 Mansfield Foundation은 미국과 아시아 관계에 있어 국가 및 국민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싱크탱크이다.

수요일 11시, 창밖을 바라보다

박 효 주

매주 수요일 11시, 언제나 전체 직원 회의가 시작된다. 간단한 행정 문제부터 굵직한 프로젝트까지 모든 사안을 함께 논한다. 다른 문화를 가진 아시아와 미국, 그 관계를 튼튼히 맺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인 만큼 소통하는 것을 참으로 중시한다. 수요일 11시가 바로 꾸준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소통 습관의 열쇠다. 무거운 실랑이를 농담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차분히 서로의 견해를 들으며 웃음과 함께 회의를 이어나가는 이들은 모두 소통꾼이었다.

서로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Mansfield Foundation의 소통법은 기관의 탁 트인 통유리 밖으로 보이던 다채로운 풍경과 닮았다. 투명하고 널찍한 창문이 공기의 흐름, 구름의 변화처럼 막혀있다면 절대 볼 수 없는 순간을 보여주었듯, 지난 19번의 열띤 회의를 통해 동료들이 보여준 소통의 태도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관계가 유지되는 힘을 배울 수 있었다.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RFK Center)는 Robert F. Kennedy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인권 증진을 통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는 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며 청원서 작성을 보조하였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세계 곳곳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구체적 사례에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일은 잘 알려진 사건에만 집중하던 나에게 더 넓은 시야를 안겨주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함을 일깨워준 RFK Center에서의 근무는 국제 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나에게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국제 인권 변호사에 한걸음 다가가다

임 태 빈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RFK Center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명시된 자유, 존엄, 평등의 구현을 위해 힘쓴다. 내가 속한 부서인 Partners for Human Rights의 변호사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혹은 간과되는 이슈에 주목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하여 소송과 변호를 맡는다.

HRNK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HRNK)는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외교 및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기관으로 북한 세습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식량분배 왜곡, 탈북난민의 어려움 등을 다룬 연구와 출판이 주된 활동이다.

북한 인권, 우리 모두의 책임

이 시 열

김정남 암살,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까지 국제사회를 향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은 2017년에도 계속되었다. 워싱턴 DC의 수많은 싱크탱크들은 그에 발맞추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모여 북한 도발의 정치적 함의를 논의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나갔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 가려 경시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인권이다.

HRNK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편찬하고 그것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HRNK에서 근무하며 먼 타지에서도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랐다. 반면, 나는 북한과 맞닿은 곳에 살면서도 그곳에 많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다. 다섯 달간의 HRNK 근무는 나에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고, 우리가 모두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Wilson Center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Wilson Center)는 故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미국 의회가 1968년에 설립한 정책기관으로 외교, 안보, 냉전사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지식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Wilson Center의 테이블

이 수 빈

Wilson Center 6층에는 작은 카페테리아가 있다. 이곳은 Wilson Center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는 공간이다. 작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토론하는 사람들은 비단 학자뿐만이 아니다. 인턴도, 보안 직원도 그 이야기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런 공간을 보기 어려웠다. 수업에서 토론이 펼쳐지면 교수님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식당에서는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익숙했다. 그렇지만 이곳의 테이블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지나가던 학자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식당 직원이 질문하기도 한다. 열린 토론의 장은 Wilson Center를 더욱 가치 있는 연구 기관으로 만들어 준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발전시켜 나가는 곳, Wilson Center는 다름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학자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곳이다.

Klaus Ottmann, Phillips Collection 부관장님 특강

예술이 사회에서 숨 쉬는 법

권 유 진

나라가 안팎으로 흔들리던 때,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곤 했다. 많은 사람이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라며 문화융성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순간, 문화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에 나는 실망했다. Phillips Collection에서 진행된 Klaus Ottmann 부관장님의 특강은 내게 예술의 힘과 문화의 가능성을 다시금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큐레이터로 있는 Phillips Collection은 문화 소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하는 동시에 재능을 발휘하기 힘든 젊은 예술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예술이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Klaus Ottmann 부관장님이 그려가고 있는 새로운 지형도가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혁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나는 부관장님으로부터 예술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했다.

이 유 진

싱크탱크에서의 인턴십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째, 기다란 테이블에 모여 앉아 Douglas Paal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생겼다. 장소도 계절도 바뀌었지만, 한편으로는 광화문에서 열띤 토론을 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성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시아 전문가이신 Douglas Paal 부회장님과의 대화는 미국·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제10기 원생들은 각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해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장마당이나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인문교육과정을 수강하던 우리와 오늘의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동시에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우리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된다.

Douglas H. Paal, CEIP 부회장님 특강

2월에 떠올리는 광화문의 추억

정 태 완

일 년 반 전쯤 한 교수님께서 내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셨을 때, 나는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곧장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을 들었다. 시간을 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 말씀이었지만, 당시 나는 속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

이번 Joseph Yun 특별대표님 특강에서 나는 여전히 통일이나 비핵화 현안을 해결할 묘안은 생각해 낼 수 없었다. 이전 모의 6자회담에서 느꼈던 것과 같이, 이 주제들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적인 문제임을 되새겼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도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나는 예전과 달리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가지는 명백한 한계에 대해서도 자각하게 되었다. 특강을 듣고, 나는 북한 문제에 대해 손쉽게 비관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을 다짐했다.

Joseph Yun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님 특강
손쉬운 비관에서 어려운 관심으로

Richard Weitz, Hudson Institute 선임연구위원님 특강
러시아 다시 보기

이 혜 진

미국은 러시아에 대단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제10기 원생들이 일하고 있는 싱크탱크에서도 수많은 러시아 관련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5일, 우리는 Hudson Institute의 The Center for Political-Military Analysis에서 유라시아, 중동 및 미국 외교, 안보 정책 분야 Director로 재직 중인 Richard Weitz 선임연구위원님과 '미국-러시아 관계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강의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관계를 폭넓게 다뤄 제10기 원생들이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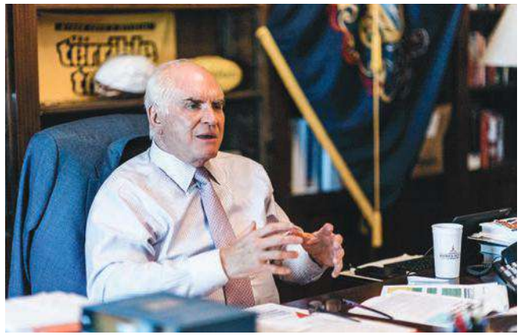
국제관계로 시작된 강의는 선임연구위원님과 원생들 사이의 인간관계로 이어졌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의 고충을 궁금해하는 질문에 선임연구위원님은 흔쾌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때로는 학자로서,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눈 시간이었다.

Mike Kelly 연방하원의원님 특강

소통하는 자세

이 석 현

미국 정치인들을 그저 스쳐 지나기만 했던 미국 의회 방문과는 달리, 이번 특강에서는 Mike Kelly 연방하원의원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미국 정치인과는 처음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 데다 친한파(親韓派)로 불릴 만큼 한미관계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Mike Kelly 의원님을 만나게 되니 더욱더 기대가 컸다. 짧은 만남 동안 Mike Kelly 의원님께서는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볍게 여긴다며 아쉬워하셨다.



의원님께서는 두 국가를 자세히 이해해야만 진정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소통'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다. 문득, 소통이 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떠올랐다. 나의 경험에 빗대어 소통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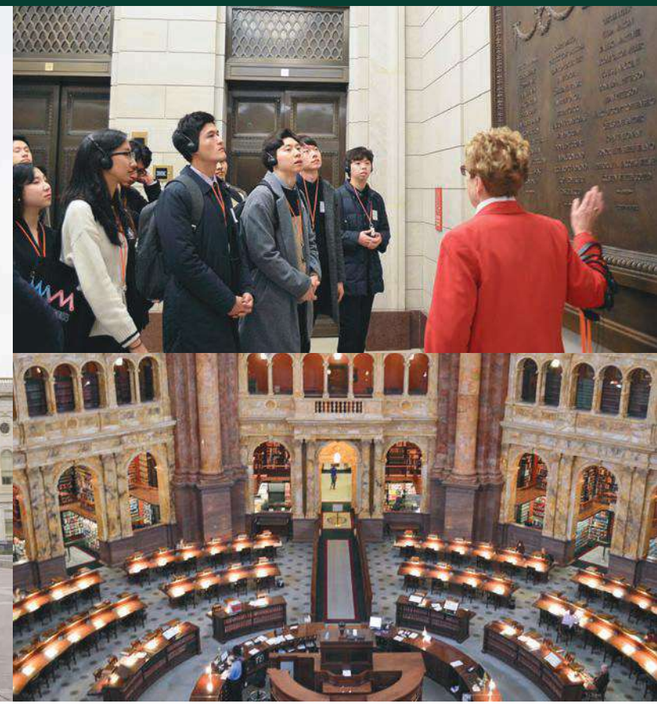
이 재 정

90년대에 태어난 나에게 민주주의는 당연한 가치이자 구조였다. 사회에서 비민주적인 면을 마주했을 때 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마찰을 겪은 적은 있어도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를 의심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역사를 공부한 우리는 오늘날의 모습이 필연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정치체제나 가치도 자연 발생적인 것은 없다.

제10기 원생들은 인문교육과정 중 여러 수업에서 글을 쓰고 토론을 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없음을 배웠다. 민주주의라는 골격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의 움직임, 다양한 의견의 공존,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역동성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걸림돌이 아닌 안정된 사회의 주춧돌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거대한 실험실, 미국 의회와 의회도서관 방문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역동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미국 의회 & 의회도서관 방문

민주주의 실험실, US Capitol



KEI 모의 6자회담 참여

토론과 협상의 간극

이 시 열

국내 인문교육과정에서 제10기 원생들은 타원형 하크니스 테이블(Harkness Table)에 둘러앉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토론 방법을 몸에 익혔다. 그러나 이번 모의 6자회담을 통해 협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토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협상은 탄탄한 논리를 내세워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국가를 설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을 속이기도 했으며 감정적으로 호소해 보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그 협상 결과로 인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까지도 고려해야 했고, 동시에 자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모의 6자회담이 종료되고 실제 6자회담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육각형 테이블에 앉아 당당히 한 나라의 대표로서 협상하던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전 지 영

팔라펠(Falafel)은 곱게 간 병아리콩을 빚어 튀긴 중동의 전통 음식이다. 겉으로 보면 고기 완자처럼 생긴 모습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을 헛갈리게 만드는 음식이기도 하다. 팔라펠 플래터 식사로 시작된 AJC 행사도 나에게 팔라펠처럼 흥미로우면서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JC는 특정 종교를 믿는 민족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종교와 연관되면 세속적인 이익에 초연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AJC는 미국 의회를 상대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대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JC는 기본적으로 유대계 미국인 이익을 옹호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추진하는 정책과 의견을 미국에 전하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어찌 보면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기관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목소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AJC 오찬 간담회 참여

팔라펠과 American Jewish Committee

홍 승 하

새롭기만 했던 워싱턴 DC에서의 인턴십도 어느덧 반 이상 지나갔을 무렵, 제10기 원생들은 뮤지컬 〈Chicago〉를 관람하기 위해 케네디 센터에 모였다.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와 배우들의 엄청난 가창력은 기대 이상의 감동을 안겨주었다. 잠시나마 워싱턴 DC를 떠나 재즈로 가득 찬 화려한 시카고의 밤거리로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화려한 무대를 동경하는 한편 백치미 가득한 록시 하트(Roxie Hart)와 노련한 전직 보드빌(Vaudeville) 가수 벨마 켈리(Velma Kelly)가 이끌어가는 줄거리는 두 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 내내 끊임없는 박수를 이끌어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관객에게 직접 곡을 설명하는 배우들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사건 하나하나가 공연 전체를 멋진 보드빌 쇼 한편으로 엮어냈다. 업무의 피로를 순식간에 날려준 뮤지컬 〈Chicago〉의 절제된 듯 화려한 미장센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뮤지컬 〈Chicago〉 관람
All That Jazz!

Asan Academy Networking Mixer 개최
네트워킹의 메카, 워싱턴 DC

태 희 준

근교 여행, 아이비리그 투어, 문화생활 등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네트워킹이다. 하루에도 각종 주제에 대해서 여러 장소에서 콘퍼런스가 열리는 이곳 워싱턴 DC는 네트워킹의 메카! 이곳에서 우리는 분야별 전문가를 만나고, 관심사가 비슷한 영프로페셔널 및 대학생을 만날 수 있다. 그들과 의견을 나누고, 친해지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교류는 Asan Academy Networking Mixer에서도 계속 되었다. 단, 이번만큼은 그 주최가 우리다. 인턴 동료 및 슈퍼바이저를 초대하여 다양한 한국 음식과 오락을 함께 즐겼다. 다른 인종,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온 우리는 뿌리가 다르지만 공통된 관심사와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록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편을 가르고 서로를 점점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관계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있을까?

Atlantic Council 문화교류

편안함을 불편해하는 자세

박 공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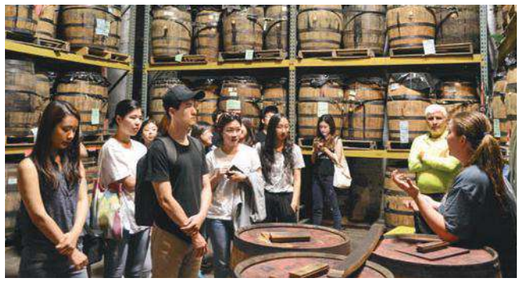
벚꽃이 만개한 4월 중순, Atlantic Council에 제10기 원생들이 모였다. 간단히 아산서원을 소개하고 Atlantic Council 내 Brent Scowcroft Center on International Security에 근무하는 Barry Pavel 수석 부회장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편안함을 불편하게 느끼는 자세의 필요성이었다.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아끼고, 편한 질문만 하는 콘퍼런스를 가장 싫어한다는 말씀은 내가 해왔던 지난 질문들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나는 그동안 질문할 기회가 생기면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 무거운 질문보단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핵심을 찌르기보단 그 주변을 건드리며 불편함을 피했다. 싱크탱크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성장하는 곳이다. 발전적 논의는 핵심을 찌르는 민감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발전하고 더 깊은 논의로 나아가려면 편안함을 불편하게 느끼는 자세가 필요함을 싱크탱크에서 근무하는 인턴으로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정 창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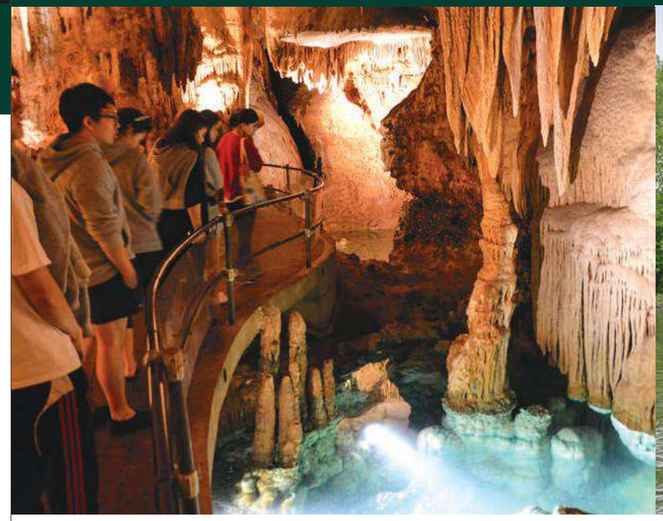
인문교육과정 중 김형철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역사는 도시뿐 아니라 자연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문화기행 첫째 날, 공원 관리 책임자인 Sally Hurlbert는 제10기 원생들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다. Sally는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 또한 자신의 임무라며 자연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Big Meadow를 터전 삼아 살았던 미국인들의 역사도 들려주었다. Sally의 설명을 들으며 유홍준 작가님께서 남기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문화재는 쉽게 망가진다. 이전에 사람이 있던 곳에는 100년이 지나도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이 떠올라 작은 감동을 느꼈다.

Shenandoah Valley를 다녀오니 김형철 교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알 것만 같다. 워싱턴 DC가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왜 무료로 개방하는지를 말이다. 사람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보전해 줄 ‘사람들’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마치 우리가 머물렀던 Shenandoah의 옛 집터처럼 말이다.



Shenandoah Valley 문화기행

사람이 있던 곳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편 광 현

Eagle Hill Farm Equine Rescue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말 보호소다. 버려지거나 위험에 처한 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 푸른색이 가득한 농장에 들어서자 각기 다른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사연을 가진 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눈곱이 끼거나 다리가 불편한 말도 곳곳에 보였지만, 다들 평온해 보였다. 주인 할머니 Annie Delp께서는 처음 입양되어 불편해하던 말들도 본인이 잘 돌본 탓인지 이제 자기가 이곳 주인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새로 태어난 망아지가 어미 말이 아닌 본인에게 기댄다며 웃으실 때는 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다. Annie 할머니의 따스한 마음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짧은 시간 농장 울타리 만드는 일을 도와드렸는데, 고맙다며 푸짐한 점심을 대접해 주셨다. 햄버거 옆에 어색하게 놓여 있던 빨간 김치가 한국에서 온 우리를 위해 준비한 Annie 할머니의 정성을 보여주었다. 동물도 사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Eagle Hill Farm 방문
포근했던 농장의 풍경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
물이 되어 기억을 나누다

박 효 주

쨍한 햇빛이 미운 오후, 제10기 원생들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에 참석했다. 묵념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식이 진행되는 내내 물소리가 은은하게 그 공간을 에워쌌다. 마치 물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바라본 터줏대감마냥 차분하면서 경쾌하게 흘렀다.

전쟁 당시 17살, 20살이셨던 할아버지 두 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총 한 자루. 살인은 상상조차 못했던 두 분은 살기 위해, 주변을 지켜 내기 위해 전쟁을 버텨냈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사를 오가던 그들의 전쟁은 우리 세대가 이데올로기 갈등의 산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전쟁과는 다를 것이다.

언제부터 흘렀는지 모르는 물은 인류의 순간을 기억한다. 반면에 인간은 한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에 물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지도 품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날은 잠시나마 그들의 기억을 살펴보았다. 물에 몸을 맡기고 그들의 시간으로 흘러가 그들의 숨결을 인식해 볼 수 있었다.

Asan Beijing Fellowship Program

Beijing 인턴십 수기

Friday Program 수기

阿拉善SEE基金会
SEE FOUNDATION

아라산SEE공익기구는 2004년에 창립된 아라산SEE생태협회가 발전하여 2008년에 설립한 중국 환경·생태 분야의 공익기구이다. 사회를 의미하는 'Society', 기업가를 의미하는 'Entrepreneurs', 그리고 생태를 의미하는 'Ecology'의 영어단어 앞 글자를 결합한 명칭이다. 즉, 중국 기업가들의 국내 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발현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기구이다.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다

윤 지 민

아라산SEE공익기구는 여러 중국 기업가들의 후원과 투자로 운영되는 중국 최대의 환경보호 단체이다. 사막화 방지, 습지 보호, 대기오염 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환경보호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2017 SEE 생태상(2017 SEE生态奖)'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20주 동안 시상식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시상식을 준비하며 중국 내 많은 개인과 단체가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요 업무 외에도 사사(梭梭)나무 심기, 사막 트레킹, 녹색금융포럼 등 다양한 기관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가지게 되었다. 기관의 슬로건인 '기업가 정신을 간직하며 푸른 물 푸른 하늘을 보호하자'를 몸소 실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중국 고대·근대사 문화수업

내가 알던 중국, 내가 몰랐던 중국

윤 지 민

9주 동안 북경 국제청년연수학원에서 중국 고대사, 근현대사 그리고 중국 농업 변천사를 공부했다. 중국에서 초·중·고·대학까지 마친 나에게는 문화수업이 이미 알고있는 내용을 다시 배우는 지루한 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색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분석해 주시고,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주시니 지루할 틈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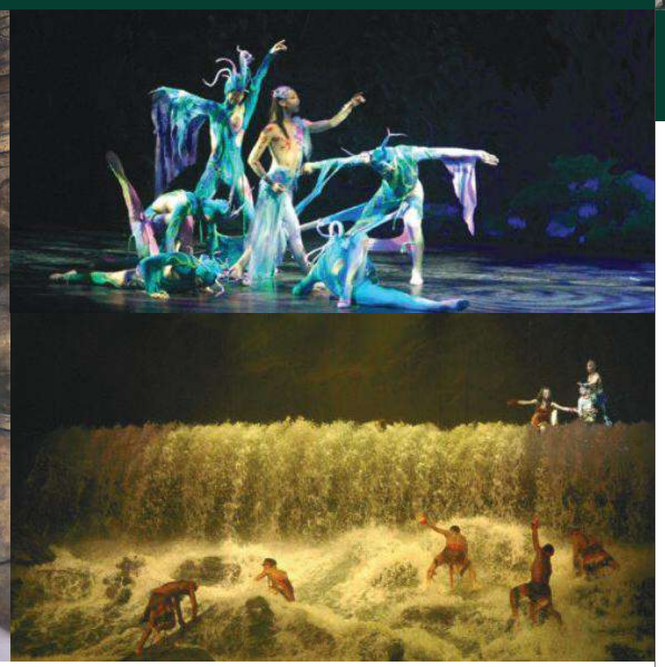
특히 중국의 역사 변천 과정 수업은 내가 알던 중국, 그리고 내가 몰랐던 중국을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동안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역사 공부에는 끝이 없으며 중국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9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국 역사를 살펴보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윤 지 민

베이징 인턴십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을 무렵, 〈금면왕조(金面王朝)〉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화교성극장(华侨城剧场)을 찾았다. 중국 3대 공연 중 하나로도 유명한 〈금면왕조〉는 금면왕족과 은면왕족의 전쟁과 통합, 그리고 두 왕족의 낭만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사랑을 그려낸 서사극이다.

〈금면왕조〉는 삼성퇴(三星堆) 문명을 배경으로 하여 '금면'과 같은 문화유산, 고대 제사 문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그리고 여인들이 동물들과 함께 춤추는 장면은 실제 청나라 시대의 궁중 공연을 재현한 것이라고 하니 더욱 놀라웠다. 무엇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무대 위에서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이었는데, 그 웅장함과 규모에 탄성을 지를 만큼 감탄하였다.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 과거로의 시간여행 기회를 제공한 〈금면왕조〉는 중국의 전통미가 살아있는 고전적 제재(題材)와 현대적 형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훌륭한 공연이었다.

뮤지컬 〈금면왕조〉 관람
베이징 최고의 공연 〈금면왕조〉



중국 청두(成都) 문화기행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배어 있는 도시, 청두

윤 지 민

쓰촨성(四川省)의 성도(省都)인 청두(成都)는 삼국지의 고장이자, 수많은 무장과 문인들을 배출해낸 역사 깊은 도시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 교통, 행정 중심지였던 청두는 그 이름에 걸맞게 문화유산이 많고 생산물도 풍부해 대대로 '천부지국(天府之國)'이라 불렸다.

청두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역사 박물관 같은 곳이었다. 한족 문화와 티베트 문화의 접이지대인 이곳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했다. 금사유적 박물관에서는 청두 삼천 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고, 무후사와 금리거리에서는 삼국지의 흔적을, 두보초당에서는 시인의 애환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청성산 및 청양궁에서는 도교의 신비로운 기운을, 낙산대불에서는 세계 최대 불상을 보면서 '불상이 하나의 산이요, 산이 하나의 불상이

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실감했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배어 있는 도시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중국의 모습을 마주하고, 중국 문명의 찬란함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산정책연구원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세계적인 싱크탱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 및 저명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아산나눔재단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2011년 아산 정주영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구현'이라는 아산 선생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 복원과 지속적인 역량 개발 사업을 통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아산서원 제10기 원생 기자단 Voyage 후기

원생들은 예쁜 사진을 찍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고마운 건 오히려 나였는데. 그들이 웃을 때 카메라 너머의 나도 웃었고 그들이 울 때 나도 울었다. 덕분에 이 잊지 못할 경험을 22번 한 셈이다.

- 이 규 정

약 1년의 시간 동안 제10기 원생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먼 훗날, 사진들을 보며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추억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이 석 현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내가 타인의 글을 교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23명의 별이 지어낸 개성 넘치는 글은 틀에 갇히지 않은 Voyage였다. 그 빛나는 여정이 나에게도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기에 원생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 임 태 빈

글은 친구들을 닮았다. 글에 친구들의 모습이 묻어난다. 글 위로 떠오르는 친구들 얼굴이 윤문하는 나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다. 글을 통해 친구들을 읽고, 이들이 바라본 세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창을 내는 일, 그것이 내가 맡은 일이었다.

- 주 혜 빈

VOYAGE

아 산 서 원　제 10 기

펴낸날 2017년 06월 30일
펴낸곳 아산서원
엮은이 아산서원 제10기 원생 기자단
편집인 아산서원 운영실
편집디자인 EGISHOLDINGS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asanacademy.org

아 산 서 원
ASAN
ACADEMY
峨 山 書 院

http://www.asanacademy.org
http://blog.naver.com/asanacademy1
http://www.facebook.com/asanacademy